

브리프: 평화협정이 한미관계에 미치는 함의

평화협정은 한미동맹을 통해 달성하려는 핵심 목표인 양국의 안보를 증진시킬 것이다. 또한 평화협정은 현 정세와 이해에 더욱 부합하도록 한미 관계를 재정비하는 데 도움될 것이다.

1. 평화협정은 미국과 한국의 국가안보를 향상시킬 것이다.

- 끝나지 않는 전쟁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위험뿐만 아니라 동맹이 애초에 추구했던 “공산주의 침략”을 저지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다. 공산주의 억지를 이유로 전쟁 상태를 지속하는 역설은 동맹의 모순을 심화시킨다.
- 끝나지 않는 전쟁 상태가 지속된다 보면 미국과 한국이 서로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로 기능할 수 있다. 한편으로 보면,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를 거듭할 경우 한국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 한국을 지원하려는 미국이 자국 안보에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
- 끝나지 않는 전쟁 상태가 지속된다 보면, 안전보장에 효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오히려 안보에 해가 되기도 한다. 실례로, 한미 연합군사연습이나 미국의 군사장비 한반도 배치는 갈등을 억지하기 보다는 조장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2. 평화협정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법적으로 한미동맹의 폐기나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 전쟁으로 인해 한미동맹을 맺게 되었지만 전쟁이 동맹의 명시적 전제는 아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어느 한 당사국이 철회하지 않는 한 동맹은 “영구적으로 유효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 미군의 한국 주둔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둔군 지위협정에 따르며, 두 조약 모두 명시적으로 전쟁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 한국은 자국 영토에 외국군을 주둔하게 하거나 철수시킬 주권을 가지고 있다.
- 평화협정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의 변경을 내포하지 않는다. 한국은 작전통제권 위임을 유지하거나 종료할 주권을 가지고 있다.
- 평화 상태에서는 휴전의 존재이유가 없으므로, 평화협정은 정전협정이 폐기됨을 뜻하며 정전협정이 계속 유효하다는 주장은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 평화협정은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로 이어져야 한다. 유엔군사령부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은 “평화와 안보”를 극단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며, 이는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과 모순된다. 사실 미국은 1976년 1월까지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계획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전한 바 있다.

3. 평화협정으로 한미관계의 앞날에 생길 변화는 궁극적으로 양국 국민이 결정할 일이며, 이는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지향해야 한다.

이 브리프는 국제 페미니스트 캠페인, ‘여성들이 만들어가는 한국전쟁 종식, 코리아 피스 나우!’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가 2021년 2월에 발간한 보고서 “평화로 가는 길: 한반도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의 “제4장: 평화협정이 한미관계에 미치는 함의” 영문 브리프를 번역한 것이다. 영문 브리프와 보고서는 KoreaPeaceNow.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KOREA PEACE NOW